

담배라고 하는 것은 니코틴으로 이루어져 있어 담배를 피면, 그 니코틴이 폐나 간에 쌓여가 사람몸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하지만 담배가 여기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연기가 그 피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 사실이 밝혀진 후로는 점점 담배를 피는 사람을 차가운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하지만 나는 담배를 피는 사람의 권리를 지켜줘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써 담배를 피는 것 자체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해소 행동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담배가 타인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담배피는 사람을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은 좋지않다. 어떤 사람들이 술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면 담배를 피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들도 있는것있다. 그 스트레스 해소방법의 차이를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담배의 연기가 담배와는 관계 없는 사람들에게 계속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안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는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면 어떨까요?

하지만 여기서 나도 담배의 CF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고 싶다. 몇번이나 말하지만 담배라는 것은 몸에 좋지않다. 피지않으면 피지않을수록 좋다. 벌써 피기 시작한 사람은 어쩔수 없다쳐도 아직 피지 않은 사람에게, 담배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배를 피자고 광고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담배를 피는 사람의 인구가 줄어드는 일은 있어도 늘어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해야한다. 다만 스스로 담배를 원해 피기시작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나무랄 수는 없다.

우리들은 담배를 피는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과 동시에 피도록 권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야한다.